



미 증시, 혼재된 지표 속 11월 FOMC 경계심리로 하락

미국 증시 리뷰

1일(화) 미국 증시는 11월 FOMC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월 ISM 제조업 PMI 및 9월 구인건수 호조가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을 제어시킨 여파로 2거래일 연속 하락 (다우 -0.24%, S&P500 -0.41%, 나스닥 -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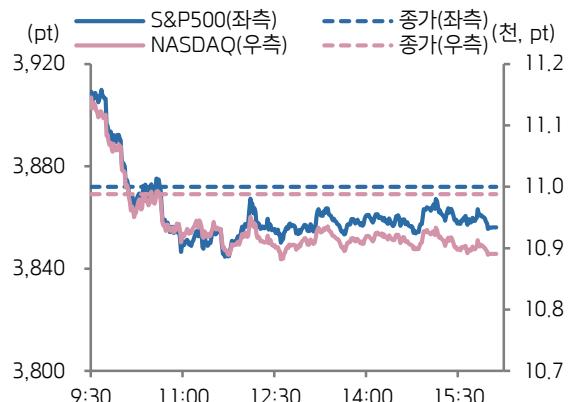
미국 10 월 ISM 제조업지수 50.2(예상 50.0, 전월 50.9) 기록하며 예상치 소폭 상회. 신규주문이 47.1에서 49.2, 고용지수가 48.7에서 50.0으로 상승, 가격지수는 51.7에서 46.6으로 하락한 점이 긍정적. 10 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역시 50.4(예상 49.9, 전월 52.0)로 여전히 확장 국면을 유지.

9 월 JOLTs 구인건수 1,071 만건(예상 975 만건, 전월 1,028 만건)으로 예상치를 상회. 민간 구인이 8 월 924 만 건에서 966만건으로 4.6% 증가, 제조업은 84만건에서 80만건으로 감소했으나, 레저와 접객 부문이 139만건에서 163만건으로 급등. 제조업이 경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서비스업 고용은 여전히 견고함을 시사. 기업들의 강한 노동 수요가 추가 인건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 대두되며 지표 발표 이후 미국채 2년물 금리는 재차 상승.

업종별로 에너지(+1%), 금융(+0.4%), 유틸리티(+0.4%) 업종이 상승, 통신(-1.8%), 경기소비재(-1.4%), IT(-0.9%) 업종은 약세. 전일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는 소식,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가능성 대두되며 중동 지정학적 불안 확대 소식에 유가가 상승하며 에너지 섹터 강세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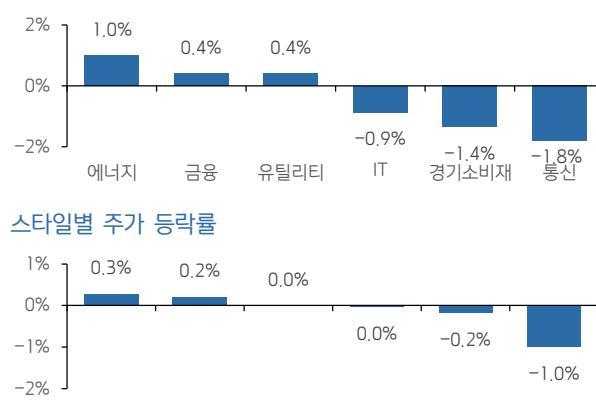
긴축 부담 속 애플(-1.75%), 알파벳(-4.27%), 아마존(-5.52%) 등 대형기술주는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었으나 이를 연속 급락한 메타(+2.19%)는 반등에 성공. 우버(11.97%)가 4 분기 이익 전망 상향에 급등한 영향으로, 경쟁사 리프트(3.48%), 식품배달업체 도어대쉬(3.61%)도 동반 상승. AMD(-0.67%)는 PC 수요 둔화로 3 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영향으로 하락했으나 시간외에서 4%대 상승, 엔비디아(0.34%), 마이크론(1.4%) 등 다른 반도체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S&P500 & NASDAQ 일종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 | | | | |
|-----------------|-----------|--------|-----------|----------|---------|
| 주식시장 | | 외환시장 | | | |
| 지수 | 가격 | 변화 | 지수 | 가격 | 변화 |
| S&P500 | 3,856.10 | -0.41% | USD/KRW | 1,417.24 | -0.54% |
| NASDAQ | 10,890.85 | -0.89% | 달러 지수 | 111.55 | +0.02% |
| 다우 | 32,653.20 | -0.24% | EUR/USD | .99 | -0.01% |
| VIX | 25.81 | -0.27% | USD/CNH | 7.31 | -0.02% |
| 러셀 2000 | 1,851.39 | +0.25% | USD/JPY | 148.24 | -0.02% |
| 필라. 반도체 | 2,402.75 | +0.77% | 채권시장 | | |
| 다우 운송 | 13,520.95 | -0.46% | 국고채 3년 | 4.060 | -11.5bp |
| 유럽, ETFs | | | 국고채 10년 | 4.136 | -9.1bp |
| Eurostoxx50 | 3,651.02 | +0.93% | 미국 국채 2년 | 4.545 | +6.2bp |
| MSCI 전세계 지수 | 587.47 | +0.19% | 미국 국채 10년 | 4.042 | -0.6bp |
| MSCI DM 지수 | 2,546.40 | -0.05% | 원자재 시장 | | |
| MSCI EM 지수 | 867.58 | +2.29% | WTI | 88.37 | +2.13% |
| MSCI 한국 ETF | 52.71 | +1.74% | 금 | 1649.7 | +0.55%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74%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84%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417.1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약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내일 새벽 발표 예정인 11 월 FOMC 경계심리 확산 가능성

주요 체크 사항

2.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등 주요기업들의 실적 발표

3. 전거래일 급등한 2 차전지 관련주들의 단기 차익실현 물량 출회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연준의 정책 전환 논의와 기대감이 금융시장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연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도 데이터 의존적으로 투자 전략을 설정하고 있는 모습. 이는 11 월 FOMC 이외에도 이후의 FOMC 에서 연준이 어떤 식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갈지에 대한 단서들이 금융시장의 지표 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 지표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

이런 관점에서 전일 발표된 미국의 주요 지표는 시장 중립적인 수준이었기에, 장 초반 하락 이후 뚜렷한 가격 움직임을 만들어 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9 월 기업들의 채용공고(1,072 만건, 컨센 1,000 만건)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은 고용시장의 견실함을 증명하고 있음. 또 애틀랜타 연은의 GDP Now 상 4 분기 성장을 전망치는 2.6%대로 3 분기(2.6%)에 이어 연속 2%대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주문 호조에 힘입어 ISM 제조업 PMI(50.2, 컨센 50.0)도 양호했다는 점 또한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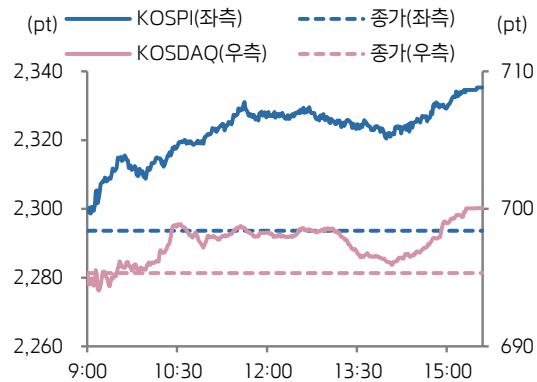
그러나 ISM 제조업 PMI 상 가격지수(9 월 51.7→10 월 46.6)와 배송지수(52.4→46.8) 등 인플레이션과 직결된 항목들이 큰 폭으로 둔화됐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 즉, 생산자 단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하면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 현재까지의 성장률은 탄탄한 것이 사실이지만, 공격적으로 진행중인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보면, 미국도 취약한 성장 경로에 진입할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

더 나아가, 3 분기 실적시즌에서도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 미국 증시 대장주들이 연준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매크로 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고 있음을 확인한 상황. 따라서, 한국시간으로 내일 새벽 발표예정인 11 월 FOMC 에서 75bp 인상 여부보다 1) 정책 전환 기대감 차단 여부, 2) 인플레이션 및 실물 경제 예상 경로에 대한 판단 변화, 3) 본인들이 영향을 미친 일련의 금융시장 불안을 정책 결정에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연준 긴축 불안, 10 월 한국 전체 수출 감소세 전환 소식에도, 2 차전지 수출 실적 호조에 따른 관련 주 동반 강세, 양호하게 진행중인 3 분기 실적시즌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코스피 +1.8%, 코스닥 +0.7%). 금일에는 최근 단기 렐리로 인한 2,300 선 돌파에 따른 일부 차익실현 물량 출회 속 11 월 FOMC 경계심리 등으로 인해 약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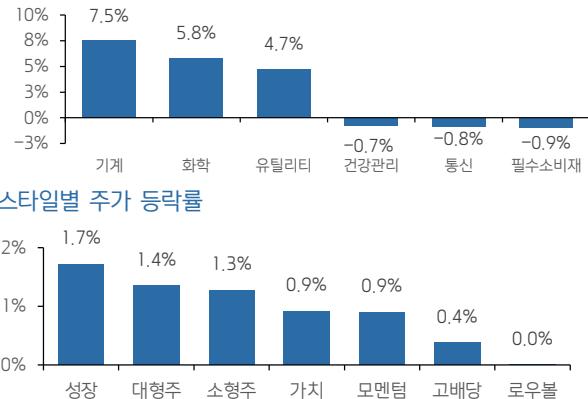
한편, 불안한 증시 환경에도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순매수의 배경으로 중국 시진핑 차기 지도부 출범에 따른 불안감이 외국인들로 하여금 중국 비중 축소, 여타 신흥국 비중 확대를 만들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실제로 MSCI 등 주요 지수산출업체에서도 a) 외국인 투자자 차별 및 제한 여부, b) 자본 유출입 용이성, c) 정부 개입과 관련된 제도의 안정성을 집중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 물론 일주일 혹은 한달 내에 빠르게 일어나는 일은 아님 만큼, 종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수급 변화에 주목.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자리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습니다.